

합격기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백 민 주

- 1985년 7월 생
- 제주 신성여고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법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I. 처음에

창을 연지 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운을 띄기가 어렵습니다. 원고청탁을 받고 그 기한까지 한참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서야 글을 시작하려는데 그 동안의 시간적 간극이 자꾸만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이, 역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고시계를 통해 접했던 다른 사람들의 합격수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마음을 다잡곤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 또한 비록 짧은 수험기간이기는 하지만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되도록 객관적으로 글을 써 내려가겠지만 수험생이라면 그러하듯 집념에 찬 수험기간동안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제 독단과 고집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II. 수험기간개관

상반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2007년 1차시험 낙방)
4학년 1학기
(2008년 1차시험 합격)
휴학
하반기
휴학
휴학
휴학
4학년 2학기
(2009년 2차시험 합격)

III. 수험교재 및 강의

1. 교재와 강의에 대한 생각

(1) 교재는 소위 '대세'에 따른 선택이었고, 수험기간 내내 잘한 것이 있다면 한번 선택한 책에 대해서는 한 치의 후회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권화란 기본서의 기본이론과 판례들이 머릿속에서 적절한 체계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잘 하지도 못하는 단권화에 욕심을 내지도 않았고, 1차는 교과서와 판례집을, 2차는 교과서와 사례집을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강의 역시 처음 기본서를 접했을 때 강약조절을 위한 밑줄을 긋기 위해 기본강의 단 한번 듣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소위 '짜라시'라는 것도 형사소송법 외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기본강의 뒤에 이어지는 모의고사 역시 온리 모의고사만 응시했습니다. 이것 저것을 많이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라 또 그러했고, 학원은 어디까지나 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해야 하는 곳이지 제 수험생활을 책임져 줄 곳이 못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 1차시험 교재 및 강의

(1) 헌법 : 기출문제집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기본서) + 정회철 O, X 판례집 + 민경식 객관식 문제집 (기본강의 듣지 않음)

(2) 민법 : 기출문제집 + 김형배 민법학강의(기본서) + 유정 개정 가족법(기본서) + 권순한 객관식 판례집 + 박기현 진도별 모의고사 + 김종원 기본강의

(3) 형법 : 기출문제집 + 신호진 형법요론(기본서) + 신호진 객관식 판례집 + 에이샵 문제집 + 신호진 기본강의

(4) 경제법 : 기출문제집 + 박도하 수험경제법(기본서) + 객관식 문제집

3. 2차시험 교재 및 강의

(1) 헌법 : 정회철 헌법연습(+ 정회철 단문집)(기본서 및 사례집) + 차강진 기본강의(1순환) + 2, 3순환 온리 모의고사

(2) 행정법 : 홍정선 행정법강의(기본서) + 김연태 행정법연습(사례집) + 성봉근 기본강의(예비순환) + 2, 3순환 온리 모의고사

(3) 상법 : 김혁봉 상법요강(기본서) + 황의영 상법연습(사례집) + 김혁봉 기본강의(예비순환) + 2, 3순환 온리 모의고사

(4) 민사소송법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기본서) + 이창한 민사소송법(사례집) + 박승수 기본강의(예비순환) + 2, 3순환 온리 모의고사

(5) 형법 : 이재상 더형법(기본서) + 이재상 이케바(사례집) + 이재상 기본강의(1순환) + 2, 3순환 온리 모의고사

(6) 형사소송법 : 이재상 형사소송법(+신이철 보충자료)(기본서) +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사례집) + 신이철 기본강의(예비순환) + 2, 3순환 온리 모의고사

(7) 민법 : 노재호 민법교안(기본서 및 사례집) + 윤동환 기본강의(1순환) + 2, 3순환 온리 모의고사

IV. 2007년 1차시험 낙방 - 모든 시행착오의 집합체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던 상태였고, 3학년 1학기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취업과 시험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급기야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결국 한 학기를 휴학하고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뛰어드는 수험생활은 모든 시행착오의 집합체였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도 없이 신림동에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다는 말에 '아니, 이런 좋은 시스템이'란 생각에 기본강의를 한번 돌리고서는 대뜸 모의고사를 집어 들고 막무가내로 풀어댔습니다. 번덕스러운 성격 탓에 공부장소도 제주도 집 → 신림동 독서실 → 학교 도서관을 전전했습니다. 시험일자가 다가오고, 8지선다 형식으로 시험방법이 바뀐다는 '헉' 소리 나는 소식에 어리석게도 불합격에 대한 나의 확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낙방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기간 중 잘한 것이 있다면 후회를 남기고 싶지는 않다며 시험일 전까지 책상을 지키며 그간의 공부 계획적인 면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 이때 얻은 교훈 :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 분석이 우선이다.

빠른 결단도 좋지만 합격수기를 분석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하자. 합격에 대한 확신으로 수험생활에 임하자.

V. 2008년 1차시험 합격

1. 취업준비 - 하지만 확실한 동기부여의 계기

예상했던 낙방이지만 그 타격은 컸습니다. 복학하고 나서는 왠 바람이 들어 책은 책상 구석에 쑤셔놓고 학교에서 하는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다녔고, 경영학 수업도 보다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계속해서 사법시험에 대한 미련이 남았고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학과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시 도전해 보라는 이야기로 들렸고, 특히나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사회 다방면의 실무자들의 열정적인 강연은 오히려 수험기간 내내 강력한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 2008년 1차시험

(1) 하루일과

여름방학이 되고 부랴부랴 토익점수를 만들고, 7월 중순 즈음 다시 꺼낸 책은 온통 곰팡이 투성이었습니다. 책을 안고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는 그곳사람들과 정말 신나게 공부했습니다. 주중에는 생활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토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일요일 오후 6시 이전까지로 휴식시간을 정해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보고 싶은 텔레비전프로도 보고, 늦잠도 폭 잤습니다. 당시 학교 고시반에서의 하루 일과와 실제 확보 가능했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생활패턴은 2차공부기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8:20 ~ 12:30 오전공부(3시간)
 12:30 ~ 1:30 점심
 1:30 ~ 6:00 오후공부(4시간)
 6:00 ~ 7:00 저녁
 7:00 ~ 11:20 저녁공부(4시간)

(2) 계획과 실천

당시 헌법을 뺀 기본강의는 비록 옛날 강의테이프를 통한 것이기는 했지만 작년에 이미 한번씩 들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기본강의부터 듣지는 않았고 작년 실패의 경험과 그동안 읽어둔 합격수기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일정범위씩 실천해나갔습니다.(작년 시험일 직전까지 책상을 지키며 이미 기본서는 약3회독정도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를 감안하고 세운 수험계획이었습니다.)

[7월 중순 ~ 8월]

기출문제풀기 + 교과서에 표시 => 교과서 읽기 => 판례집풀기(빠르게) x 3.5과목

[8월 ~ 11월]

교과서 읽기 => 판례집풀기(천천히)
 => 객관식 문제집 풀기 x3.5과목

[12월 ~ 1월 중순]

교과서 읽기 => 판례집풀기(교과서에 없는 판례들만 표시해나가며) => 객관식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들 체크 x3.5과목

[1월 중순 ~ 시험일 직전]

교과서 읽기=> 판례집풀기(표시해둔 부분을 집중해서) => 최신판례정리 x3.5과목 (+암기가 되지 않은 부분은 얇은 공책에 따로 정리해둠) (4·2·1을 하

려 시도했으나 2까지 제대로 함)

(3) 시험당일

든든하게 아침밥을 챙겨먹고 시험 장소까지 이동했습니다. 짐이라고는 막판 기간 동안 암기가 부족한 부분만 따로 정리해둔 공책 한권, 필통과 점심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몸도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어쨌든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해 준비해둔 공책한권을 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미처 외우지 못한 부분을 체크했고 시험 중에는 정신없이 지문을 읽어 내려가며 문제를 풀어 내려갔습니다. 결과는 다행히도 합격이었습니다.

VI. 2009년 2차시험 합격

1. 예비순환

1차 시험을 마치고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잠깐 쉬러 제주도 집에 있었던 1주일 동안 닥치는 대로 합격수기를 구해 읽어 내려가며 내년 2차 시험합격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공부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다른 이들의 합격수기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학해서 4학년 1학기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간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헌법연습, 민법연습, 행정구제법, 상법연습 등 연습과목들 위주로 수업을 선택했고, 후에 신편동에서 공부하는 중에도 이때 들었던 수업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외에는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해 후4법 기본강의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기본서를 겨우 일독씩 한 상태로 2차 시험장에 들어가

게 되었습니다.

※ 다만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학교를 다닌다는 핑계로,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당해년의 시험을 진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격차를 벌리고, 더욱 탄탄하게 실력을 쌓는 데는 이 기간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재시를 준비하는 동안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 많이 후회했습니다.

2. 2008년 2차시험

준비되지 않은 시험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4일이었습니다. 4일 내내 주어진 시험지의 논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더군다나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들로 8장의 시험지를 채워나가는 일은 곤욕이었습니다. 4일간의 기간은 시험장만 구경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고 몸도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글씨 쓰는 속도를 기르는 것이 우선이고, 빠른 시간 안에 논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사례 푸는 연습을 통해 순발력을 기르고, 기본적인 정의와 판례문구들은 철저히 암기해야겠다는 대략적 감을 잡고, 집에서 쉬는 등 마는 등 한 채 1순환으로 돌입했다.(나중에 안 사실인데 암기가 잘 되어있다면 글씨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후에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펜 잡는 방법을 바꾸고 글씨의 획수를 줄이는 등 속도를 빠르게 하기위해 신경 썼습니다.)

3. 1순환

학원에서 후4법에 대한 1순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집에서 신림동 독서실을 통학하면서 교과서를 읽고, 한 순환 먼저 사례집을 병행해서 보며 2회독을 마쳤습니다.(예비순환때 이미 기본강의를 들었고 교과서에도 이미 강약이 표시된 상태인지라 다시 학원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기본 3법은 1차 공부방법면에서 2차 공부방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에 듣고 학원에서 하는 1순환 강의 오전 비디오반을 신청하여 들었고 철저히 복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2순환

본격적으로 신림동으로 거소를 옮겼습니다. 독서실에서 해당범위만큼의 교과서와 사례집을 보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등록하여 이틀에 한번 꼴로 이뤄지는 모의고사를 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당범위의 교과서와 사례집을 완벽하게 마치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에 따라 모의고사 시간도 월요일에는 오전반에서 주말이 되면 야간반에서 치는 등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어 졌습니다.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는 모범답안을 통해 빠진 논점들과 판례문구를 체크하고, 최고답안과 비교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갔습니다. 더러는 최고답안을 내고 날아다니는 기분도 느꼈지만 모의고사 점수는 대체로 저조했고, 3순환 즈음에는 논점일탈에 글씨 읽기가 매우 괴롭다는 체점자의 토로를 읽고 울먹거렸던 기억도 납니다.

이때 우연찮게 독서실에서 좋은 학교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당일 친 모의고사를 가지고 말로써 주거나 받게

니 하는 스테디 아닌 스테디를 3순환까지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실력이 많이 느는 것을 느꼈습니다.

5. 3순환

정말 상상 그 이상의 3순환이었습니다. 2순환을 나름 충실히 보냈다고 보냈건만 하루하루의 진도가 매우 벅찼습니다. 하지만 진도 절대 사수라는 신념으로 교과서와 사례집을 다 보고 야간에 있는 모의고사에 응했습니다. 어느 순환처럼 기본적인 정의와 판례문구를 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소 체력만 믿고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공부하는 기간 내내 밥 먹고 난 뒤에는 9동 골목길을 15분에서 20분씩 노래를 듣거나 선배들과 함께 산책했다. 공부기간 중 한 운동은 이것이 전부였지만 공부하면서 이 시간이 큰 낙이 되었습니다.

6. 4·5·6 순환

역시나 시험 직전까지 4·2·1을 하려 노력했으나 2까지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이해나 암기가 덜한 부분을 따로 체크해 두고 그 부분을 특히 자세히 읽도록 노력했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는 따로 응시하지 않았고 4를 하는 기간 동안 과목을 마칠 때마다 모의고사를 구해서 고시원에서 혼자 시간을 맞추고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책과 표시해둔 사례들을 보고 또 보고를 반복했고 역시 기본적인 정의와 판례문구를 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 2009년 2차시험

다행히 시험 장소가 중대에 배치 되서 학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등록하고 사흘 동안 신림동과 중대를 왔다 갔다했습니다. 사흘 동안 온몸에 있는 열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고, 팔과 어깨에는 온통 파스를 붙여 반은 파스 냄새에 취해 정신이 없었습니다.(그 와중에도 시험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만 들리면 번쩍 정신이 들었으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와서는 자려고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아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섯 시간씩은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 다음날 과목을 모두 볼 수 있으면 합격이라는 말에 있어 다 보려고 노력했지만 역시나 마지막 날 민법은 채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위 말도 옳은 것 같기는 했지만 시험을 치루면서 무엇보다도 쓰러지면 시험을 치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컨디션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 운동이라도 좀 해둘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VII. 마치면서

특별한 종교는 없으나 잠들기 전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려운 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수험기간 내내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기를 쓰며 그동안 연습했던 모의고사 시험지들을 살펴보니 모자란 것들이 더 많아 보여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항상 멀지만 가까운 곳에서 저를 믿어 주는 저희 가족들, 따뜻한 연락에도 파이팅!이라는 문자를 아끼지 않고 날려주고 먼저 안부를 묻던 돌봉이, 암전을 비롯한 고향 친구들과 손수 점심도시락을 싸줬던 니키언니, 그리고 바쁜 교환학생 생활 중에도 편지로 소식을 전하던 율언니와 채선언니, 베로니카언니, 경화언니, 혜지, 은애, 귀련이를 비롯한 대학동

기들, 선배님과 후배님들, 그리고 학교 고시반에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 주었던 경진언니, 선경언니, 윤희언니, 하영언니, 정애언니, 희진언니, 미지, 리나를 비롯한 우리 고시반 멤버들과 저희를 챙겨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신림동에서 친동생처럼 편하게 대해주셨던 현숙언니, 정인언니 모두 감사합니다.

형법학의 독자성과 자존을 추구한 成均館大學校 法大教授

刑法總論(제3정판)

(18절판/양장/760면/35,000원)

任 雄 著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6-3
전화 : (031) 955-6500
FAX : (031) 955-6525

도서출판 法文社